

## S&P,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용등급 "A" 부여

### □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에 따라 "A"등급 부여

-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& Poor's(S&P)는 7월 14일자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"A", 내국화폐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"A+"로 부여하고, 단기국채 신용등급을 외화표시와 내국화폐표시 모두 "A-1"으로 부여하였음. 한편, 동국의 거시경제전망에 대해서는 "안정적"(stable)으로 평가하였음.
  - 앞서 6월 20일에는 역시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's가 동국의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, 대내채 무등급을 Ba1에서 Baa1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.
- S&P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지표가 안정되어 있고 외환보유 상황이 양호하여 이 같은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으며, 최소한 2005년까지는 동국이 대외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 - 그러나 정부 재정이 석유수출 수입(收入)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재정정책의 유연성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점과 경제 및 사회구조 개혁의 속도가 느린 점 등은 장차 현재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으로 올라서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S&P는 지적하였음.

전문연구원 오경일 (☎3779-6646)
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